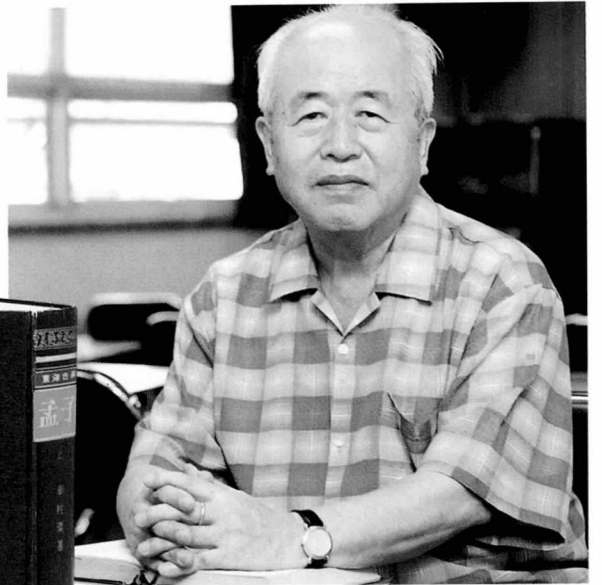


# 도덕정치 주창한 성현의 준엄한 꾸짖음

국어순화운동가 이수열씨가 뽑은 차주환이 옮긴 《맹자》



“통치자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를 깨우치기 위해, 각료들은 통치자를 바르게 보필하는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은 통치자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통치자를 감시하는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맹자》를 읽고 음미해야 합니다.”

신촌에서 만난 이수열씨(73, 국어순화운동가)는 막 강의를 마치고 곱게 손때묻은 《맹자》와 직접 쓴 추천글을 앞에 두고 고즈넉이 앉아 있었다. 흰 서리 내린 머리, 둥근 어깨, 웃음 짓는 대로 자리 잡은 정다운 얼굴 주름은 어느 음식점의 맘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했다.

누렇게 변색한 《맹자》는 벌써 그와 사십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다. 성장하면서 지식을 넓히고 사상을 깊게 하는 필독도서로 여겨,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으며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는 이 책은 그에게 ‘모든 시민이 꼭 읽어야 할 도서’다.

“정치개혁, 부패척결,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외침이 ‘소귀에 경 읽기’로 문혀버리는 요즘, 맹자의 왕도정치사상(인덕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 정치철학)은 더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통치자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를 깨우치기 위해, 각료들은 통치자를 바르게 보필하는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은 통치자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통치자를 감시하는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맹자》를 읽고 음미해야 합니다.”

단호한 어조의 추천사에는 말글을 통해 도덕성 회복과 주체성 고취에 애써온 이력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시대도 사람도 다른 이 때 맹자의 가르침이 기능하겠는가 하는 우문에 “백성의 안락한 생활을 책임질 수 없다면 왕위에서 물러나라는 직언은 동서고금을 통해 맹자가 유일합니다. 도덕정치의 성현으로서 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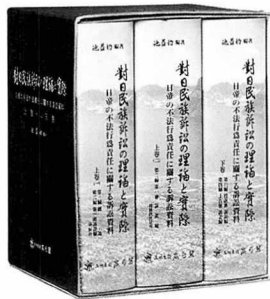
자는 시대를 관통하는 도리를 설파하고 있죠. 또 교훈을 얻고 적용하려는 의지는 온전히 독자의 몫입니다”라는 현답을 달아줬다.

교열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딸기밭’이 있다. 이는 빨간색 펜으로 너무 많이 고쳐 별건 지면을 이룬다. 신문에 열심히 기고하는 필자들 가운데 여러 신문을 두루 섭렵하며 ‘적발’해 정성스레 고쳐 보내주는 그의 ‘딸기밭 편지’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는 신문필자들 사이에 ‘빨간펜 선생님’으로 통한다. 그가 지금까지 쓴 책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 쓰기》(현암사), 《우리글 갈고 닦기》(한겨레신문사) 등 세권인데, 모두 지난 1999년 칠순이 지난 나이에 펴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국어순화에 대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정말 국어답게 제대로 고치고 만든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읽히는 것, 진실로 표준이 될 만한 사전을 만드는 일이 그의 남은 소망이자 과업이다. — 차정신기자

## 對日民族訴訟の理論と實際

日帝の不法行爲責任に關する訴訟資料



對日民間法律救助會 會長 池益鈞 辯護士 編著로 2001. 8. 15 光復節을 기하여 「對日民族訴訟の理論と實際」日本語版을 圖書出版 高句麗에서 出版하였다. 本書는 日帝와의 各種條約의 無效와 太平洋戰爭으로 囚한 軍人, 勞務者, 從軍慰安婦 등의 各種 不法行爲에 대해 日本國에 對한 裁判關聯 訴訟資料 全文이다.

本 訴訟은 日本裁判所에 1992年 對日民族訴訟을 提起하여 現在 日本最高裁判所에 繫留中에 있다. 筆者는 發刊辭에서 本書는 韓民族의 國難克服의 民族白書로 後世에 알리고 北日國交正常化 交渉에 寄與되기를 밝히고 있다.

新菊版 洋裝/上(一)(二)卷 · 下卷 總3,510面/¥28,000円(₩280,000원) -300帙 限定版 注文販賣-

서울 銅雀區 上道銅 211-178(郵156-841) 도서판매 高句麗 電話 ; (02)822-5764, FAX ; (02)822-1703, HP ; (018)216-5764